2026년 09월 가정통신문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날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에 과일이 잘 익는 것도 감사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길고 긴 무더위를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넘긴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혜롭게 잘 보내는 것도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며 살아서는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절마다 덥다고, 춥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불평불만을 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연에 순응하는지, 역행해서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몇 번만 경험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삶도 자연과 같이 때로는 변화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듯, 우리 어르신들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 생신잔치와 추석맞이 송편빚기를 9월 17일 (목요일) 에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축하해 드립니다.

♥ 예사랑 주간보호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달 생신이었던 윤영숙님, 김정숙님, 최복식님, 주화자님께
푸짐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생신잔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8월 한달간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